

눈을 위한 도구, 도구로써의 눈

도카마치 지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다설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한 도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적설량이 평균 2m에 달하고, 하루에 50cm 넘게 눈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카마치 지역의 풍경은 11월 하순에 첫눈이 내린 후부터 4월 눈이 녹을 때까지 1년 중 절반이 하얀 세상입니다.

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눈을 옮기고, 제거하고, 압축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합니다. 썰매나 삼처럼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용도를 알기 어려운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울 때 꼭 필요한 긴 톱니모양 날의 ‘눈절단톱’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고시키’라는 노 모양의 도구로 지붕 표면의 부드러운 눈을 긁어내면 축축한 상태로 압축되어 얼음처럼 단단해진 바닥의 눈이 드러납니다. 이 단단한 눈을 큰 덩어리로 잘라내는 것이 바로 ‘눈절단톱’입니다.

그 외에도 눈과 관련된 도구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지닌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카리’라고 불리는 유연성이 있는 대형 스노슈입니다. 스카리는 대나무로 만든 골격의 앞쪽 끝부터 착용자의 손이 닿는 부분까지 짚으로 된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카리는 너무 길이가 길어서 그대로는 걸기가 힘들지만, 끈을 당겨 골조 앞부분을 들어올리면 일반적인 스노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을 놓으면 눈을 밟아 다지는 바닥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끝없이 이어진 눈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스노슈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카리가 스노블로어 같은 기계장치나 대량 생산된 도구들로 대체되었지만, 과거에는 지역의 공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아침 일찍 나가 아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식량 준비나 저장과 관련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를 이로리(조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실내 화로)라는 난로불로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된 격자모양 나무선반(히다나)이나 여름철에 눈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눈 위에 깔아두는 짚으로 짠 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쌓아둔 눈은 눈 전용 톱을 사용해 블록형태로 잘라 여름철 냉장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긴 겨울 동안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벧짚이나 대나무를 사용한 농기구와 생활용품, 저마(모시)를 재료로 한 직물 등 다양한 것들을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눈을 활용해 관리하고 강화했습니다. ‘유키자라시’라고 불리는 공정에서는 먼저 소재를 눈 위에 펼쳐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자외선과 녹은 눈에서 방출되는 수소이온의 작용으로 섬유가 표백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와 같은 각종 도구들은 눈이 많은 지역에서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또, 도카마치 지역의 유산인 사람들의 지혜와 공동체의 결속력,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이들 도구는 모두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